

‘본사 점거’ 하이트진로 노조, 농성 9일 만에 부분 해제

24일 오전 10시부로 본사 로비 농성 해제 옥상 점거는 이어가...사측과 교섭도 계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9일만에 농성을 부분 해제했다. 24일 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다. 노조는 전날 이

는 사실을 공지하며 “하이트진로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비를 점거 중이던 조합원 17명은 이날 경찰의 신원 확인 및 안내 하에 본사 바깥으로 나왔다. 이른 오전부터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합원 50여명은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나를 때마다 “투쟁”, “수고하셨다”고 외치며 이들을 격려했다. 별다른 충돌 없는 발생하지 않았고, 노조원들은 15분 만에 화물연대본부가 마련한 버스에 타고 농성장을 벗어났다. 다만 이 건물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은 계속 진행된다. 현재 경찰과 사측은 9명의 조합원들이 고공농성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성 참여 노조원들이 머무는 야외 농성장도 본사 앞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진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농성장 철수 계획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는 집회 신고를 했다”며 “준법 유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간 기동대 4개, 야간 기동대 2개를 투입해 현장을 관리해왔으나 1층 로비 농성이 해제되면서 경력 배치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경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농성을 진행했다. 현재 노조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갖

고 있는 하청업체 수양물류와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 18차 협상에는 하이트진로 본사 물류팀장이 참가한 자격으로 참석한다. 하이트진로가 협상에 나선만큼 화물연대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이슬기자



레펠 하강하는 군인들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2022 을지연습 서울교통공사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만취 승객 추행 후 성폭행하려 한 대리운전기사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께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가 잠이든 틈을 노려 목격자 도착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

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추석이 고비다...” 전남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 총력 차단 방역

거점 소독시설 22곳 운영·연휴 전후 일제 소독의 날 시행

전남도가 청정 축산환경 수호를 위해 외부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석연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차단 방역에 나선다. 전남도는 추석연휴 양돈농장과 그 주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을 포함한 추석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한데다, 추석연휴 많은 귀성객 이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국내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 양돈장에서 5월과, 8월, 각 2건이 발생했다. 야생에서도 경기·강원과 충북과 경북 등에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된 가운데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장거리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자제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비사업 127억원, 자체사업 40억원 등 총 167억원을 확보하고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방역시설은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는 농장 차단 방역시설이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8대로 구성된다. 현재 전남 양돈농가 중 43%가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양돈장에 설치 마칠 계획이다.

이에 전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소독에 이어, 축산 관계자와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22곳의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통해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후인 9월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 입산 자제, 농장 내 외부 철제한 소독, 귀성객 양돈농장 방문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청정 전남을 유지하기 위해 양돈농가는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실천하고, 귀성객은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발생 이후 양돈농장에서 23건이 발생하고 야생멧돼지에서 2655건이 검출됐지만 전남지역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